2020 여주 마을미술 프로젝트 참여작가 선정 심사평

선정된 우리동네 “꿈꾸는 도자예술”과 “늘고운정원” 등 2개 사업은 본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쇠락한 마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.

다만, 충분한 신청기간이 부족한 탓인지 심사위원 대다수가 마을의 의견보다는 작가의 시선과 의지가 우선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
따라서 마을의 기억과 주민의 희망이 충분히 반영되고, 예술성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추후 제안서를 보완하여 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선정된 단체에서는 마을의 문화예술 자생력 확립과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미술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심사위원 일동-